

연중 제 31 주일

기도서 470 면(B해)

제1독서: 신 명 6, 2-6
 제2독서: 히 브 7, 23-28
 복 음: 마 르 12, 28b-34

숲정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마르 12, 30-31)

□ 강론



자애(自愛)

엄기봉 신부

오늘은 11월을 맞이해서 첫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방금 들었던 구약과 신약성경 말씀들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예수께서는 먼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하느님의 사랑과 다음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성서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우리를 사랑안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시간과 피정, 그리고 주일 강론시간을 통해서 자주 하느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에 대해서는 들어왔지만 그러나 실제로 「네 몸 같이」라고 하신 「자기 사랑」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되지 않고 소홀히 여겨온 느낌입니다.

오늘날 심리학은 우리에게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자신의 사랑을 강조한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고 또한 하느님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이웃 사랑과 하느님에 대한 사랑의 비결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말입니다. 건강하고 성숙한 생활을 위한 커다란 요체의 하나는 자신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자애란 우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즉 자신의 장점 뿐만 아니라 단점까지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자애란 자기 도취나 자기 기만, 자기 폐쇄가 아닙니다. 더구나 지난날의 어떤 지워질 수 없는 과오에 대해서 자신을 학대하거나 멸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에게는 너그럽고 친절하면서 자신에게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남에게 베푸는 미덕, 즉 용서와 관용과 인내와 친절을 자신에게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된 자기 사랑은 하느님의 사랑에 눈을 돌릴 때 가능하게 되며, 성장되고 풍요로워 집니다.

하느님의 육화(肉化)는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보배로운 존재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강생의 신비에 머무름 때 자신에 대한 가치와 이해가 더욱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하느님의 용서를 믿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역시 자신에 대한 수용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을 믿고 받아들일 때 자신에 대한 관리가 증가되며, 이제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깨달을 때 자신에 대한 사랑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느님의 육화, 하느님의 용서, 하느님의 은총, 하느님의 사랑에 머무를 때 자신의 사랑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순창 천주교회)



암살당한 총독의 동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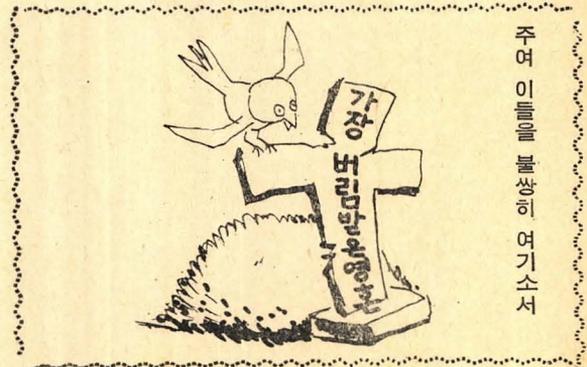
포르투갈 식민지인 마카오의 리스보아 호텔 앞에는 칼을 들고 말을 탄 동상이 서 있다. 그 동상의 주인공은 아말라 총독이다. 지금은 세금을 내지 않는 마카오 주민들이지만, 아말라 총독이 지배하던 당시에는 높은 세금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이 어려웠다고 한다. 그래서 살기가 어려워진 주민들의 분노가 아말라 총독의 암살로 나타났다. 그러한 역사의 한 단면을 말없이 증언하고 있는 상징이 바로 그 동상이다.

그런가 하면 그 동상이 서있는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콜로안 성당(路環天主堂)에는 성 프란치스코 사베리오(방지거 성인)의 오른 팔뚝이 모셔져 있다. 조그마한 그 성당에는 또한 59명의 일본인 순교자와 14명의 베트남인 순교자의 유골도 모셔져 있다. 그리고 그 마카오에는 한달 전에 성 김대건 신부의 동상이 우뚝 섰다.

이 11월은 우리에게 죽음을 묵상하도록 가르치는 때이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언젠가는 한 번 죽어야 하는 것이 엄숙한 자연의 진리이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안죽을 것처럼 바둥댄다. 그런가하면 고통받는 착한 사람들과 멍멍거리는 못된 사람들을 바라다보며 한숨을 쉬는 사람들도 있다. 꼭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며 갈등을 느끼는 사람들이다. 그런 가운데에도 죽음을 묵상하며 잘 사는 사람들도 있다.

지금 정가에서는 정치적인 배신이다 아니다 하며 다투고 있다. 깊은 내막에 대한 역사의 이야기가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다. 그때에는 바른 심판이 주어진다. 사실 역사의 심판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다. 원성을 듣고 땅속에 묻혀진 독재자들에 대한 역사의 심판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아말라 총독과 순교자들의 죽음은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죽음을 묵상하게 하는 좋은 교훈이 아닐 수 없다.

숲정이 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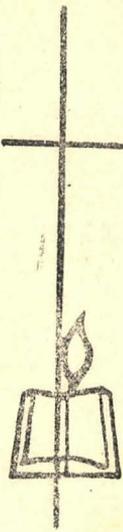
성서교실 ③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마르 10:47)

마르코·마태오 복음에 의하면, 이 기사(記事)는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나온다. 루카복음에 의하면, 예수와 자캐오(19:1-10), 금화의 비유(19:11-27) 전에 이 기사가 나온다. 역사(歷史)적인 사실로서는 마르코·마태오처럼, 맹인 치유가 예루살렘 행진 최후 사건으로 봄이 옳을 것이다. 이 사건은 수난의 서곡이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다윗왕의 자손이라는 말이 아니고, 메시아(구세주)의 별명으로 민간 통용어가 된 것이다. 그가 예수를 이렇게 부른 것은 예수가 구세주임을 그가 이미 알았는지 아니면 그 순간 깨달았는지 했기 때문이다. 「여러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은 것」은 그가 돈 한푼 구걸할 줄 알았는지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급히가는 예수를 방해하지 말라는 뜻에서였는지 아니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독점의식에서였는지 해서 그랬을 것이다. 독점의식은 금물이다(마르 10:13-16 참고). 이것은 병자,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준 예수 마음과는 거리가 멀다. 「나에게서 바라는 것이 무엇이나?」. 이것은 신앙의 시험이다. 이것은 맹인으로 하여금 고백을 종용케 한 것이다(롬 10:10).

이 기사(記事)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은 이러하다. ①맹인의 갈구도 있었지만, 예수편에서 측은한 마음이 있어 그런 역사(役事)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마태 20:34, 롬 9:16, 18). ②「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는 말씀으로 예수가 치유하였다. 예수의 치유방법은 천대만상, 자유자재였다. 이 말씀 속에는 이미 치유된 것을 확인시켜 주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다(루카 8:47-48). ③이 이야기 속에는 메시아 사상이 충일되어 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함은 구약 예언의 실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이사 11:1이하, 예레 23:5-6, 예제 34:23-24). 따라서 맹인의 치유, 거기에 메시아 내림의 예표가 있는 것이다. 이 기사(記事)를 통해서 지금 우리도 치유되어야 할 것이다.



□ 시대의 징표

*** 오늘날의 호랑이 ***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다. 호랑이가 당장 눈 앞에 보이지 않는 현대에는 실감이 나지 않겠지만 오늘날에는 사실 옛날보다 더 무서운 호랑이(?)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이 아닐까?

먼저 TV를 보자.

은 가족이 모여 대화를 통해 하루의 피로를 풀어야 할 저녁에 온 가족이 TV 앞에서 그 시간을 온통 다 보낸다. 연속극, 쇼, 스포츠중계, 이러저러한 프로... 울리면 울고, 웃기면 웃고 하는 등 우리는 TV가 시키는대로 따라 한다.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에 TV가 제2의 하나님, 안방주인, 어린이들의 양어머니가 되어 가고 있다.

버스 정류소 주위의 신문 판매대는 어떤가? 잡지의 표지, 표지에 나타난 호기심을 자극하는 기사들(연예인, 운동선수, 재벌, 경제범죄인 등), 차마 읽을 수 없는 난잡한 영화제목들, 이러한 것이 우리들의 신경을 자극하고 있다.

편리한 문화생활에 혹처럼 빠라운 인스탄트 생활—힘 들고 어려운 댓가를 치루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과정을 치루기보다는 일확천금을 더 꿈꾸게 하는 부권, 도박거리고 정성들여 보관하기 보다 비싸고 좋고 번쩍거리는 새것만 구입하려고 강요하는 온갖 광고들, 방부제 넣어진 인스탄트 식품들이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부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부의 헌신적인 사랑을 멋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다. 또 저녁상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는 가정에 빨리 돌아가지 못하게 막는 ‘이번 한번만’의 기분좋은 연회석상. 일요일: 친구의 결혼식, 모처럼의 낚시, 등산, 멋진 약속이 미사보다 더 매력을 주어 갈등을 빚게 한다.

황금만능, 소비주의의 풍조가 근면절약을, 과학적 증명과 실증주의가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위협하고 있다.

부유와 안락, 개인주의적이고 일시적인 것을 추구하는 풍조에 젖어 있어 땅에 떨어져 썩는 밀알의 매력을, 복음의 순수한 맛을 잃어버리고 있는 세상이다. 이와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리스도의 굳건한 토대 위에 서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치관은 금방 흐려지고 말 것이다. 물 흐르듯 떠내려가는 물질주의적 사고의 흐름을 타지 말고 끊임없이 투쟁하면서 진복판단을 거울 비추듯 비추어 보자. 이것만이 이 시대의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차려 살 수 있는 삶이고, “깨어 있어야”는 주님 말씀을 몸으로 살아 가는 삶이다.

11월! 죽음을 목상하는 위령성월이다.
깨어 기도하는 한달이 되자.

웨딩드레스·약혼복 드레스 대여

금수미용실

신부화장·파마·맛사지·부케
신부야외촬영·비디오촬영

(신자분은 특별 할인함)
전주시 경원동 관동로변
민정회관과 소서빌딩 사이
☎ 2-8507
주. 박 영 숙 (유리아)

대우전자 비디오 테프
특약점

교육용, 성서용 각종프로
테프 판매 대여

영진 비디오

결혼 회갑 각종 문화행사
특수 촬영

☎ ②4094 전주백화점 옆
채석자(클라라)

마기환 안과 의원

부설: 새한콘택트렌즈

원 장 안과전문의 마 기 환

한 남 희(비리시타)

TEL. 75-2203

(시집가는날. 태극당건너편 불새대방 2층)

동 태극당
서 오거리
→ 전동성당
← 종년제과로

마기환안과

교 구 소 식

1. 교구 사목협의회 정기총회 : 5일(화) 오전 10시, 장소-가톨릭센터 회의실
2. 사제 평의회 : 5일(화) 교구사목협의회 후, 장소-교구청 회의실
3. 11월 준중 월례미사 : 4일 7시30분, 장소-가톨릭센터 성당
4. 교리교사 교구 및 지구 임원·각 본당회장 11월 월례모임 : 11일 6시30분 센터 제단체 사무실에서
5. 교리교사 성탄준비 연수 : 16일~17일, 장소-가톨릭센터
6. 전주교구 푸른군대(제15차) 월례 피정 : 7일 오전 10시~16시, 전주 덕진천주교회 준비-접수비 1천원·도시락·피정 및 미사도구, 대상-일반 모든 교우
7. 베소라성서 개강 : 5일,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12시, 오후 7시30분~9시30분 가톨릭센터, 김정원 신부님(72-4978)
8. 제 1차 레크레이션 지도자 강습
일시-16일~12월 21일(매주 토 오후 6시~8시)
대상-누구나 신청순 ○○명, 수강료-8천원(수로증 수여)
접수-11월 11일까지 교육국(☎0041)
9. 군산·이리지구 하나회 총회 : 3일 오후 3시, 둔율동 본당
10. 성실하신 동정녀 소년 꾸리아 : 3일 오후 2시, 둔율동 본당
11. 참 부모의 길 : 10일 오전 10시, 회비-부부당 2천원, 옥봉천주교회
12. 반갑습니다 : 왕수해 신부님께서 로마에서 4년간의 학업을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하셨습니다

「주님의 날」 11월호 안내

농촌신자들을 위한 월간지 「주님의 날」 11월호에는 그리스도인의 죽음, 종말론, 용지공소 소개, 발작물 수확과 보리 씨앗뿌리기, 희망을 하느님께 둔 어느 소녀의 이야기, 공소예절 등이 실려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교구내 뿐 아니라 타교구에서도 공소단위로, 또는 개인적으로 신청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에 감사드리며, 또 언제든지 신청을 하시면 즉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청은-교구청 홍보국

❁ 잠 관 !

거부할 수 없는 것-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거부해도 한가지만은 결코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곧 '죽음'이라는 부름 앞에서다.

죽음이 우리의 문을 두드릴 때면 우리는 모든 것을 내어 놓아야 한다. 일생동안 번거, 가진 것 뿐 아니라 삶 전체를 온통...

오늘 밤 죽음이 나를 부르다면 나는 무엇을 내어 놓을 것인가 - 오직 하느님만 믿고 살아온 굳건한 믿음? 그분의 사랑과 자비에 신뢰를 둔 생생한 희망? 고달픈 자에게 격려를 주었고, 미소환 자를 따듯이 대해 주었던 애덕? - 어느 하나도 드릴 것이 없어 신앙인으로서 너무나 부끄럽다.

이 순간, 숨쉬며 움직이고 있는 것에 감사드리자. 그리고 주어진 순간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자. 그러면 죽음이 나를 부를 때 죽음이 죽음이 아니요 구원과 자비의 때가 될 것이다.

충실한 하루가 행복한 잠을 가져오듯 충실한 일생은 행복한 죽음을 가져올 것이다.



사 원 모 집

1. 모집인원 : ○명
2. 자격 : 성실하고 신체 건강하며 사회참여를 원하는 45세 미만의 여성
3. 대우 : 기본급 5만원, 수당 및 보너스 지급
4. 제출서류 : 이력서, 주민등록 등본 각 1통
5. 모집기간 : 신청순, 동시 면접 결정

☎ 이리 2-8307

(이리우체국 맞은편)

EVAS 새이리지사

□이전 개업 대 건 회 관

연회석 완비
단체손님 환영
한성여관 뒷편,
문산부인과 앞
☎ ⑦566 · ②3170
김한영(안토니오)
하정희(엘리사벳)

□마춤 · 대여□ 신 부 의 집

*웨딩드레스·연주복·
비디오촬영·폐백의상·
신부부케·야외촬영
판릉도로 서울신탁은행 앞
☎ ⑥ 6951
정 인 기(논지도)
최 영 자(헬레나)

◎神이여, 나를 왜? *연극*

-종교와 예술이 접목된 무대, 하느님은 당신과 당신 영혼을 시험하신다!
"나는 가톨릭으로 개종하고 싶다"
루스윌프/작
안상철/연출
크리스티나 여왕
*인간의 본능, 그리고 신의 계율이 갈등하고 승화되는-십자가의 의미를 십장의 고통소리와 함께 간직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85년 11월 9일~10일 예술회관 대극장 <극단 황토>

제 1 지구 각 본당소식 ②

(노송동)

사제관 6-0969 주임신부 김 옹 태
수·사 2-7032 보좌신부 김 의 철
아파트 75-6389 사도회장 이 흥 재

1. 대의원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각 구역장님들 사도회임원님을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2. 사도회 상임위원회 : 오늘 오전 9시
3. 예수성심회 월례회 : 5일 어머니미사 후 빠짐없이 참석합니다
4. 본당 올드레아 : 6일 저녁 7시30분 본당내 남녀 푸르실리스타들의 빠짐없는 참여 바람
5. 본당 교직자 회의 : 11일 저녁 8시 성의있는 자세로 임합니다
6. 전자올겐 구입기금 속히 납부합니다 : 신입하시고 아직 못내신 분들은 속히 납부하세요
7. 공소 순회미사 : 9일 저녁 8시, 신원리공소
8. 감사합니다 : 제머에 국화(화분) 봉헌해 주신 이요한·송아네스 부부님께 감사드립니다
9. 금주의 전례담당 : 제3주, 차주는 제4주 담당입니다

아파트 성당 소식

1. 성서연구 시작 : 중단됐던 마르코복음 연구를 11월부터 계속합니다
매주 화 오전 10시-성가연습, 10시30분-성경연구
 2. 아파트성당 대의원 월례회 : 5일 오후 3시 각 구역장님들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 지난주 봉헌금 : 699,255원 교무금 : 294,000원
신축금 : 214,000원

(서학동)

사제관 2-8307 주임신부 김 반 석
사무실 " 사도회장 김 낙 균
수녀원 2-2276

1. 자모회 : 5일 오전 10시30분
2. 성모회 :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3. 꾸리아 모임 : 다음주일 오후 2시
4. 예비자교리 : 오늘은 없습니다
5. 축! 오늘 견진성사 받는 분들에게 축하드립니다
6. 85년도 열마 남지 않았읍니다 : 교무금 및 사제후원금 완납하시기 바랍니다
7. 다음주 전례

미 사	해 설	1독서	2독서	기 도
첫 미사	함문권	송영은	전영택	꾸 리 아
공식미사	신영창 고정수	한상철	박종순	회 장 단
저녁미사	강경화	진태철	이윤례	봉 사 분 과

- 지난주 봉헌금 : 일반-305,550원 중·고생-11,540원
주일학교-9,020원 제-326,110원
교무금 : 285,000원

(전동)

사제관 6-6208 주임신부 김 치 삼
사무실 2-3222 보좌신부 김 기 끈
수녀원 2-8347 사도회장 김 병 오

1. 사도회 : 공식미사 후
 2. 글라라 형제회 : 오후 1시30분
 3. 전동신자 1일피정 : 4일 오전 9시~오후 5시
①준비물-묵주, 성경, 성가집, 미사보
②접수비-1천원(접실 제공함)
③모든 신자 빠짐없이 참여 바람
④신심단체장 및 구역장님들은 봉사하여 주시기바람
 4. 주일학교 자모회 : 5일 오전 10시
 5. 자모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6. 85년 추계 가정방문 안내 : 85년도 영세자에 한함, 85년에 타본당에서 이사는 신자, 전동구역내에서 타동으로 이사한 신자(특히 교동 1가, 풍남동 일부), 가정방문에서 빠진 신자, 노약자(병자) 가정 ※ 상기 해당 가정은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7. 다음주 봉헌담당 : 신일균 부부
 8.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 해설-기정희, 독서-①김동연 ②최정석
공식미사 : 해설-이준영, 독서-①유철중 ②안득수
- 지난주 봉헌금 : 818,170원 교무금 : 790,000원

(복자)

사제관 75-0592 주임신부 권 영 균
사무실 2-5238 사도회장 김 성 원
수녀원 "

1. 꾸리아 회합 : 다음주일 오후 2시
 2. 성우회 :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3. 첫염성체 : 10일 공식미사
 4. 예비자 성지순례 : 오늘 오전 10시, 천호성지
 5. 1지구 중·고생 성가경연대회 : 24일 성가연습-토 오후 4시30분~6시, 일 오후 1시
 6. 동산촌성당 걷기기금 헌금 : 성전전립에 정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가정방문 : 6일-다가동 1·2·3반, 7일-다 1·2·3가, 8일-중앙동 1·2반
 8. 중·고 교리경시대회 시상 : 최우수상-서정혜, 2등-이현숙, 3등-김미숙(중등부), 고등부 1등-김은경, 2등-박기석, 3등-최선홍
시상일-10일 공식미사(위 수상자는 공식미사에 참석 바람)
 9. 금주 청소 : 월-평화의 모후pr, 토-사도의 모후pr
차주 청소 : 월-사랑하오신 어머니pr
토-순결하신 어머니pr
 10. 금주전례 : 해설-이기배, 독서-①강기연 ②김운자
차주전례 : 해설-황만금, 독서-①조성호 ②이갑진
- 지난주 봉헌금 : 188,350원 교무금 : 408,250원

(상관)

사제관 79 주임신부 김 영 신
사무실 사도회장 이 정 우

1. 구역 대의원회 : 공식미사 후
 2. 봉사·협조 : 본당 조경공사에 많은 협조 바랍니다
※ 성금 신입해 주세요
 3. 11월중에 추계 가정방문이 있습니다
 4. 금주전례 : 해설-문병주, 독서-①안현기 ②강성호
봉헌-강덕용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108,450원 교무금 : 186,000원

(호자동)

사제관 75-3841 주임신부 박 중 신
사무실 2-0915 사도회장 이 교 성
수녀원 2-4804

1. 성지순례 : 7일 7시30분 출발(시간 엄수)
 2. 미사시간 변경 : 새벽 6시, 저녁 7시(오늘부터)
 3. 주부 성서대학 : 에레미야 ③ 6일 오전 10시
 4. 꾸리아회의 : 오후 2시,
글라라회 :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5. 교육관 신축 봉헌 묵주기도 : 5,843단
누계-107,883단
 6. 건축헌금(납입자) : 20만원-김봉권, 17만원-조선, 10만원-이육분, 5만원-최진주, 3만원-김영신, 2만원-박복래, 1만원-조선자·송제만·이화선·이광근
- 지난주 봉헌금 : 506,300원 교무금 : 847,000원
건축헌금 : 610,000원